『종교학연구』 제 35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7, pp. 1-20.

마아트의 재현, 나르메르 화장판

배 철 현*

目 次

1. 우주의 원칙, 마아트
2. 화장판
3. 파라오의 등장과 문명의 탄생
4. 질서의 등장
5. 왕권의 등장
6. 나가는 글

1. 우주의 원칙, 마아트

이집트 문명이 3000년간 지속된 이유는 그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소통을 위한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태어나기 위한 문법이다. 마아트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화 그들이 구축한 예술이나 건축과 같은 가시적인 문명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도구다. 모든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일상을 통해 이 원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준수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몸가짐, 가족, 공동체, 국가, 자연, 그리고 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아트' 발현을 시도하였다. 이 시도들이 모여 이집트 문명의 정체성이 서서히 구축되었다.[1)]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Denise Martin, "Maat and order in African Cosmology: A Conceptual Tool for Understanding Indigenous Knowledge," *Journal of Black Studies* 38 (2008), 951-67.

'마아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핵심 키워드다. 마아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시간관을 살펴보아야한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간관을 가졌다. 그들은 시간을 선형적이면서도 동시에 순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첫 번째 '선형적 시간관'을 '데트'det라고 불렀다. 우주가 창조된 그 시간부터 우주가 다시 혼돈으로 파괴될 때가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신념을 표현한 단어다. 하늘을 땅위에 있고,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태양을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태어나자라고, 그리고 죽는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은 영원한 동일성을 따를 뿐이다. 그들은 두 번째 시간관을 '네하흐'nehah라고 불렀다. '네하흐'는 '영원히 순환하다'라는 의미로 태양은 똑같은 자리를 매일, 매달, 매 계절 순환하고, 동식물로 삶과 죽음의 순환을 반복한다. 이집트인들의 시간관은 연극과 같다. 연극대본은 '영원히 동일한' '데트'이며, 연극배우나 그 밖의 장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 순간의 공연이 '네하흐'다.[2] 시간은 이 순간에 일어나고 동시에 지속되고 있다. 시간은 순환적이며 동시에 선형적이고,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완료된 상태이기도 하다.[3]

마이트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고정되고 불변하고 영원한 시간인 '데트'가 매 순간에 발현되는 원칙이자 틀이다. 마아트는 우주창조신화에서 우주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마아트가 등장하기 전, 우주는 혼돈상태에 있었다. 마아트는 종교적으로 질서, 균형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마아트는 또한 개인이 도달해야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최선을 의미한다. 모든 이집트인은 자신의 마아트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족, 공동체, 국가, 자연, 그리고 신에게 마아트를 실천해야한다. 마아트는 태양을 아침마다 뜨게 하고, 밤에는 별을 내고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인간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현실의 단단한 기반이다. 마이트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삼라만상 그 자체다. 바위가 꽃은 인간이 상상하기는 도덕이나 윤리를 초월하는 자연 그 자체, 바로 마아

---

2) James P. Allen, *Middle Egyptian Grammar: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04.

3) Jan Assmann, *Moses the Egyptian: The Memory of Egypt in Western Monothe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185.

트다. '마아트'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고대 이집트어로 '마아트'는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마아' 동사에서 파생한 추상명사다. 서양철학에 등장하는 자연법과 같은 개념으로 우주의 질서다. '마아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 힘들지만,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만물이 존재해야만 하는 방식"이다. 인간존재의 핵심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발현하는 일이다. 마아트는 '나를 내가 열망하는 내가 되도록 나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큰 원칙'같은 것이다.

진리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림문자가 하필이면 '타조'라는 동물과 연관되었는가? 우리는 '마아트'라는 이집트 성각문자가 등장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첫 번째 추론은 긍정적인 면이다. 타조 깃털은 중심축으로 양쪽이 정확하게 동일하여, 약간의 바람에도 깃털이 움직인다. 타조 깃털은 또한 땅의 신은 겝Geb과 하늘의 신인 누트Nut의 아버지이며 대기의 신인 슈Shu의 상징으로 '슈트'shut라고도 읽는다. 대기의 신은 '겝'은 종종 깃털로 장식한다. 공기가 땅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타조 깃털로 표시한 '마아트'는 만물의 섬세한 중심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다. 마이트는 또한 한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발휘해야할 영원하면서도 독창적인 자신이 개성이다.

두 번째 추론은 부정적인 분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타조의 행동방식과 연결되어있다. 타조는 위험한 일이 닥치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 이집트인들은 동물 형상을 지닌 신들은, 자신이 정복한 동물들의 모습을 착용함으로 동물이 가진 힘을 획득하고 극복한다고 믿었다. 전문적인 사냥꾼이 자신들이 사냥한 호랑이의 이빨이나 독수리의 발톱을 목걸이로 착용한다. 신들은 이 상징을 달고 자신을 모시는 인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하라는 표식이다. 타조깃털은 우리에게 타조가 지닌 세 가지 거짓을 극복하라는 경고다. 인간이 지닌 동물적인 욕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뻔뻔함,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극복의 대상이다. 마아트 여신의 머리를 장식한 타조깃털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 현실을 직면하고 정의롭게 진실된 삶을 의연하고 용맹스럽게 살라는 촉구다. 마아트의 실천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하는 행위를 알고 실천에 옮기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인

'아힘사'다. 이집트 문명은 바로 거짓과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마아트'에서 시작하였다. 성각문자 '마아트'에는 왕좌나 동상이 똑바로 안전하게 서있기 위해 꼭 필요한 주춧돌 글자가 들어가 있다. 이집트인들은 마아트 없이는 우주도, 자연도, 인간도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아트는 이집트 문명과 사상의 주춧돌이다.

고대 이집트어의 등장은 드라마틱하다. '나르메르'라고 불리는 왕이 상-이집트(남부 이집트)와 하-이집트(북부 이집트)를 통일한 과정을 눈과 얼굴 화장을 위한 화장판에 최초 이집트 문자와 함께 그 과정을 선명하게 새겨놓았다. 소위 '나르메르 화장판'[4]에는 인류 최초의 문자와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다. 그 중심엔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리더, 나르메르가 있다.

II. 화장판

고대 이집트인들은 통치자인 파라오의 등극이 문명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은 문명의 구성하는 두 요소인 문자와 도시의 등장을 마려하는 단초였다. 이집트 문명의 시발점은 초기 통치자들의 구축한 이집트 왕권이 탄생한 기록이다.[5] 최초의 파라오라고 추정되는 나르메르Narmer는 자신의 등장과 상하 이집트의 통일을 '화장판'化粧板에 새겼다. 이 화장판은 자신이 파라오임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눈 화장을 위한 팔레트이며, 신전에서 사용된 중요한 제기였다. 나르메르는 헤라콘폴리스Hierkonpolis에 위치한 송골매신 호루스Horus 신전에 양면이 박육조薄肉彫로 화려하게 새겨진 63.5cm 길이의 화장판을 바쳤다. 이 화장판은 호루스 신전에서 파라오의 화장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다가, 후대 파라오들이

---

4) 영국 고고학자 J.E. 퀴벨(Quibell)이 1897년 이집트 남부 '헤라콘폴리스'(혹은 '네켄', 오늘날 '알-콤 알-아흐말'로 불리는 곳)에서 이 화장판을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하였다.이곳에서 이집트 최초의 역사인 고왕국시대 제1왕조가 시작된다. 이 화장판은 길이가 64㎝나 되며 편암으로 제작되었다. 크기, 무게, 장식들로 미루어 보아 왕의 화장을 위해 사용한 일상적인 용품이 아니라 제의(祭儀)용품으로 추정된다.

5) Toby A.H. Wilkinson, *Early Dynastic Egypt* (London: Routledge, 1999), 183-229.

다른 신전 용품들과 함께 매장하였다. 그 후, 거의 5000년이 지나, 영국 고고학자 제임스 E. 퀴벨James E. Quibell (1867-1935)과 프레데릭 그린Frederick W. Green(1869 - 1949)이 나켄Nakhen의 호루스 신전에서 발견하였다. 지금은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 영구 소장중이다.[6] 이 화장판은 화장판이 발견된 헤에라콘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와디-함마마트wadi-Hammamat에서 채굴된 실트석siltstone으로 제작되었다.[7]

그림 1. 나르메르 화장판, 실트암, 크기: 64cm×42cm, 기원전 31세기.
(이집트 카이로박물관 소장)

6) James E. Quibell, *Hierakonpolis 1. Egypt Research Account* 4 (London: Bernard Quaritch, 1900); James E. Quibell and Frederick W. Green, *Hierakonpolis 5. Egypt Research Account* 4 (London: Bernard Quaritch, 1902).

7) 이집트 선왕국시대의 중심도시였던 히에라콘폴리스에서 상하이집트의 통일을 기원하는 장식화장판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그들중 대표적인 것이 '나르메르 화장판,' '리비아 화장판,' 아프리카 야생개, 기린, 그리도 다른 동물들을 묘사한 '개들 화장판,' '전투 화장판,' 파라오를 상징하는 황소를 묘사한 '황소 화장판,' 그리고 '사냥꾼 화장판' 등이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눈은 '보호', '권력' 그리고 '건강의 상징이다. 눈은 여신 '와젯'Wadjet으로 등장한다. 고대 이집트어로 '와즈'wadj는 '녹색'이란 의미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크게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태양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눈화장을 시작했다. 그들은 휘안석(輝安石)에서 축출한 검은색 '콜(kohl)'을 축출하여 눈가에 발라 직사광선을 피했다.[8] 그리고 초록색이 나는 '공작석(孔雀石)' 가루로 얼굴을 화장을 하였다. 화장은 죽은 후,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 열망의 표현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화장에 대한 열망은 『사자의 서』에 잘 드러나 있다. "왕들의 왕, 주인들의 주인, 통치자들의 통치자, 두 땅("상-하 이집트")을 누트 여신("하늘 여신")의 자궁에서도 소유하는 당신에게 찬양을 돌린다. 그는 조용한 땅의 평원을 통치하신다. 심지어 자기 육체의 금색을, 머리의 파란색을, 양팔의 청록색을 통치한다."[9]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몸에 활력과 부활의 상징인 녹색으로 눈과 얼굴을 화장하는 행위를 특별하게 여겼다. 고대 이집트어 '이웬'iwen은 '색깔'이란 의미다. 그러나 이 단어는 '외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색'은 그 사람만의 '개성'이다.[10] 고대 이집트인들은 민족들을 색을 통해 구분하였다. 파라오는 화장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나르메르나 고대 조각가들이 이 화장판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화장판이 파라오의 존재를 창조해 주었고 이집트 문명의 근간인 '마아트'를 형상화하였다.[11]

---

8) '콜'Kohl은 휘안석輝安石(stibnite)을 갈아 만든 고대 눈 화장품이다. 고대인들은 마스카라를 위해 목탄을 사용하였다. 콜은 아직도 중동, 북아프리카, 지중해, 동유럽, 남아시아 등지에서 눈 윤곽을 돋우는 화장품으로 사용한다. '콜'은 아랍어로 '쿠흘'kuḥl과 고전 히브리어 '카할'kaḥal로 남아있다. 이들이 '콜'로 눈 화장을 한 이유는 작열하는 태양의 거친 광선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9) Raymond O. Faulkner and Ogden Goelet Jr., *The Egyptian Book of the Dead: The Book of Going Forth by Day: The Complete Papyrus of Ani Featuring Integrated Text and Full-Color Images, 20th rev. ed. Eva von Dassow* (London: Chronicle Book, 2015), 23.

10) A. Erman and H. Grawpow, eds. *Wörterbuch der ägyptischen Sprache.* vol. I. (Leipzig: Akad. Verlag, 1926), p.52; H. Kischkewitz, *Egyptian Art: Drawings & Paintings* (London: Hamlyn, 1989), 21.

11) Richard H. Wilkinson, *Symbol & Magic in Egyptian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1999), 104. 화장판은 고대 이집트의 선왕조시대(기원전 3100 - 2686

III. 파라오의 등장과 문명의 탄생

나르메르 화장판은 고대 이집트 역사의 탄생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이 화장판에 등장하는 문자와 그림들은 인간문명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표현한다. 나르메르와 화장판을 제작한 조각가는 이집트 문명의 기초를 극명한 이원론에 기반으로 발전시켰다. 이집트 문명을 발전시키는 '질서'와 그 문명을 와해하려는 '혼돈', 이집트 질서를 상징하는 파라오와 그것을 위협하는 외국인 적들, 문명사회를 구축하려는 인간과 야만사회를 상징하는 짐승들, 문명의 상징인 도시와 문명구축이 불가능한 사막이다. 파라오는 마아트의 화신으로 질서와 선을 유지하고 혼돈과 악을 물리치는 신적인 인간이다. 파라오의 이런 군사적인 특징은 후대 등장하는 파라오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집트에서 아직 문자가 등장하기 전인 '선왕조시대'(?-기원전 3100년)에서 '초기왕조시대' (기원전 3100 - 2686년)는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왕조, 왕권, 왕이라는 개념, 그리고 왕의 도상圖像은 오랜 기간을 거쳐 서서히 완성되었다.[12] 나르메르 화장판이 발견된 헤라콘폴리스 신전은 초기왕조시대, 즉 문자가 등장하기 전 선-역사시대부터 존재해왔었다. 이집트 문명 탄생의 순간을 '나르메르 화장판'보다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은 없을 것이다. 나르메르는 왕권이 등장한 순간을 포착하여, 최초의 문자와 함께 화장판에 새겨놓았다. 이 화장판은 이집트가 탄생한 선왕조시대 삶과 이집트가 펼칠 미래 왕조문명의 특성을 모두 담은 경계적인 기념비적 작품이다.[13]

파라오는 이집트 문명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중간적인 존재로서 파라오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신적인

년)에 얼굴과 몸 화장을 위해 화장원료를 곱게 갈기 위한 유물이다. 화장판은 선왕조시대에 제사를 위한 장식으로 사용되다 후대에는 파라오와 귀족층의 실제 화장판으로 되었다.

12) Toby A.H. Wilkinson, *State Formation in Egypt: Chronology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1996); J. Bains, "Origins of Egyptian Kingship," in O'Connor and Silverman eds., *Ancient Egyptian Kingship: Probleme der Ägyptologie* 9 (Leiden: Brill, 1995), 95-156.

13) Toby A.H. Wilkinson, "What a King is This: Narmer and the Concept of Ruler," *Journal of Egyptian Archeology* 86 (2000), 23-32.

속성을 지닌 야누스다. 파라오의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신과 인간의 중간가적 특성들을 선명하게 표현한다. 고대 이집트어로 이름은 '렌'ren이다. 고대 이집트어는 그림이 뜻을 가지는 상형문자로, 그 그림을 통해 단어의 의미와 발음을 전달한다. 첫 번째 자음 r은 '벌린 입'을 형상화한 성각문자다. 두 번째 자음 n은 바다 물결을 형상화한 문자로 '물'을 의미한다. 물결의 움직임을 표시하기 위해 지그재그를 세 번 반복한 문자다. /n/은 이집트신화에 종종 등장하는 혼돈의 신인 '누'nw와 깊이 연결되어있다. '누'는 바다 물결의 복수형을 형상화하였다. 우주의 질서는 '물결'이 상징하는 '혼돈'과의 싸움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름'을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혼돈의 물에서 질서의 육지를 형성할 때, 그 창조된 개별 대상에게 준 선물이다. '렌'이란 성각문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혼돈의 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신이 입을 열어 자신의 의지를 말로 표현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다.

파라오는 특별하면서도 다양한 이름들을 가진다. 이름들을 통해 자신의 임무와 권위를 강화한다. 이집트 고왕조시대 제 5왕조(기원전2494 - 2345년)부터 파라오는 다섯 개의 공식적인 이름을 가졌다.[14] 이 다섯 개 이름 중 첫 번째 이름인 소위 '호루스 이름'은 기원전 3100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명칭이다. '호루'는 고대 이집트어로 '멀어 떨어져 있는 존재'란 의미다. 태양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 만물의 소생에 영향을 주지만, 접근할 수 없는 천체다. 고대 이집트인들을 동물을 통해 자신이 신앙의 대상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저 높은 하늘을 유영하는 송골매를 태양의 상징으로 여겼다. '호루스'는 태양에 대한 은유다. 소위 '호루스 이름'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맨 위에는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송골매가 직사각형 모양위에 앉아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호루스가 앉아 있는 정형화된 궁궐 모양이다. 지상의 궁궐이 바로 '파라오의 상징'이다. 고대 이집트어로 '파라오'라는 말은 '집'을 상징하는 '파르'per와 '크다'를 상징하는 '오'의 합성어로 축자적으로는 '큰 집'이란 의미다. 고대 이집트인들을 이런 모양을 고대 이집트어로 '세렉'serekh이라 불렀다.

---

14) James P. Allen, *Middle Egyptian Grammar: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64.

'세렉'이란 단어는 '알다'라는 동사 rh의 사역형으로 s를 접두하여, '알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srh에서 파생했다. 세렉은 요철형태로 지어진 진흙으로 건설한 이집트 궁궐의 정면모양이다. 파라오의 궁궐 세렉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알려주는 어떤 것"이란 의미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세렉 위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이다.

IV. 질서의 등장

나르메르 화장판은 앞뒷면이 모두 낮은 부조로 새겨져있다. 앞면은 세 장면으로 구분되어 묘사되었고, 뒷면은 네 장면으로 구분되었다. 앞면은 상부 이집트(지도에선 이집트 남부)의 왕인 나르메르가 하부 이집트(지도에선 북부 델타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뒷면은 나르메르가 이집트를 상하이집트를 통일하여 인류 최초의 문명을 제시하고 마아트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먼저 화장판 앞면의 맨 위에 파라오가 행사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표현하였다. 나르메르 화장판의 맨 위에 세렉이 등장한다. 세렉의 첫 부분인 '호루스'가 생략되었다. 혹은 궁궐 표시 양편에 새겨진 '바트'라는 암소여신으로 대치되었다. 세렉의 두 번째 요소인 궁궐이 표현되었다. 이 모양은 초기 왕조 파라오 궁의 모양이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오의 이름이 성각문자로 등장한다. 궁궐 안에 거주하는 파라오를 두 개의 그림글자로 표현하였다. 위에는 '메기', 아래쪽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정'이 그려져 있다.

왜 나르메르는 혹은 이 화장판을 제작한 예술가는 혹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든 사람은 궁궐 안에 '메기'와 '정'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고 시도했을까. 이 두 단어가 모여 무슨 의미를 창출하는가? 고대 이집트어로 '메기'는 '나아르(na´ar)'으로 발음하였고 '정'은 '압'(ab) 혹은 '메르(mer)'라는 음가를 지녔다.[15] 이 의미를

15) 이집트학자 윌킨슨은 '나르메르'라는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이름을 제안한다. '메기'를 의미하는 '나르'(n´r)가 후대 고왕국시대 등장하나, 기원전 3100년경 그 발음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르'(mr)도 명사 '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브'(ab)라는 음가로 사용된다. 그는 이집트 파라오 이름이 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헤르-사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 문자 체계를 간단히 알아보자.

그림 2. 나르메르 화장판 앞면.(이집트 카이로박물관 소장)

이집트 왕조의 시작은 이집트 성각문자의 탄생에서 시작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3100년, 인류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소통의 도구인 '문자'를 발명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는 특별한 법칙을 발명하였다. 이 법칙

브'(Hr-s´b)라고 판독하였다. 그 의미는 '(날개를) 활짝 편 호루스'란 의미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이집트 성각문자의 3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첫째, 표의문자(ideogram)다. 각각의 성각문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사물들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므로 일단 표의문자로 분류될 수 있다. 표의문자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문자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을 표현하기 위해 입모양을 직접 그렸고 '르'r로 발음했다.

두 번째, 표음문자(phonogram)다. 표의문자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표의문자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은 직접적으로 묘사가 가능한 사물로 제한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낼 수 없는 대상이나 개념은 그 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언어의 음을 나타내는 문자를 표음문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파라오 자신의 이름 '나르메르'을 표의문자로 표시할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둘로 나누어 '나르'와 '메르'로 구분한 후, '나르'에 해당하는 문자와 '메르'에 해당하는 문자를 추적하였다. 그는 '나르'라는 음가를 지닌 '메기' 그림과 '메르'라는 음가를 지닌 '정' 그림을 그렸다. 그런 후 '나르'와 '메르'는 이 단어들이 표현하는 그림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음가를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나르메르' 왕의 이름을 훌륭하게 표현한 셈이다.[16] 이렇게 나르메르는 인류에게 문자를 가져다주며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런 방식을 '레부스 법칙(rebus principle)'이라고 부른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의 음가를 빌려 발음하는 문자 체계다. 하나의 레부스는 특정 사물을 표현하는 그림으로서의 문자가 그 시각적인 의미를 잃고 문자 고유의 음가를 통해, 혹은 이러한 음가의 결합을 통해, 표의문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가를 가진 또 다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결정사(determinative)다. 중기 이집트어의 경우 표음문자로 표기된 단어 맨 뒤에 표음문자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 말미에 첨가된 표의문자를 결정사라고 한다. 결정사에는 다음 두 가지 문법적 기능이 있다. 첫째, 결정사를 선행하는 문자들은 모두 표음문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단어가 내포

16) '나르메르'를 '위협적인 메기'로 번역할 수도 있다. '정'을 의미하는 '메르'mer는 형용사도 '위협적인'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의미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위와 종류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가다'란 동사는 '페리'pri다. 이 동사는 '걷는다'라는 의미를 결정짓기 위해, 이 동사 뒤에 '걷고 있는 두 다리' 기호를 첨가한다. 이 기호를 '결정사'라고 부른다.

일부 학자들은 기원을 수백 년 전까지 추정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설형문자나 한문과는 달리 이집트 문자 체계는 기원전 3100년 갑자기 등장하였다. 학자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유를 첫째, 이전의 문자체계가 목재 등과 같이 영속적이지 않은 매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기원전 3,100년, 나르메르를 포함한 일부 지식인들이 레부스 방식이라는 과감한 방식을 통해 문자를 발명하였다. 인류는 한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징체계인 문자를 통해, 문명을 구축하였다.

'나르메르'는 '싸우는 메기'로 번역되기도 한다. '메기'는 공격적이며 다른 물고기를 지배하는 특성이 있다. 호루스를 대치한 두 황소 모양은 암소여신 '바트'를 묘사했다. 바트 여신의 뿔은 남성의 상징이 아니라 신성을 표시한다. '바트' 여신은 후대에 다른 암소여신인 하쏘르 여신으로 대치되었다. '정'이 이름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정'은 질서정연한 문명을 위해 쓸데가 없는 것을 쪼아내는 도구다. '나르메르'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 최초의 질서를 이 화장판에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구강구조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시점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30만 년 전이다.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의 유골, 특히 치아와 목구조를 살펴보면, 이들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양한 말을 구사하는 동물로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생인류가 말이 아닌, 말을 시각적인 소통의 매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불과 5100년 전이다. 나르메르 화장판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

나르메르 화장판의 앞면 두 번째 칸에 나르메르가 전쟁포로를 정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있다. 전쟁포로는 하-이집트(북부) 리더인 '와아쉬'(w´š)다. 와아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돌려 죽음의 순간을 초연히 맞이하고 있다. '와아쉬'의 이름이 성각문자로 그의 머리 오른편에 새겨져 있다. '와아쉬'란 이름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와아쉬는 이집트 북부 델타의 '물이 많은 지역(š)의 유일한 자(w´)'란 의미다. 나르메르는 정복하기 힘든 늪지대 사람들의 통치자인 '와아쉬'를 정복하여 이

집트 통일의 꿈을 이루었다.

세렉의 맨 윗부분에 등장해야할 송골매의 신인 '호루스'가 이 전쟁장면에 등장한다. 호루스는 하-이집트에서 자라는 파피루스 위에 앉아 와아쉬의 코를 줄로 묶어 나르메르에게 건네주고 있다. 나르메르의 정복은 태양신인 호루스가 예비한 우주 질서의 일환이다. 파피루스는 카이로 근처 델타 지역에서 나는 식물로 하-이집트 전체를 상징한다. 이 화장판을 제작한 사람은 나르메르가 하-이집트 정벌은 호루스의 섭리하는 점을 강조한다.

나르메르는 맨발이다. 그는 자신이 정벌한 땅을 발로 밟는 행위를 단순한 군사 행위를 넘어선 거룩한 행위로 생각했다. 그는 지상의 신전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상의 존재다. 나르메르 뒤로 그의 샌들을 들고 있는 사제가 등장한다. 사제는 오른손에 의례에 사용할 정화수를 담고 있는 조그만 항아리가 들고 있다. 오리엔트세계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신이 들어서는 장소가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라는 표시다. 성서 「출애굽기」 3장에도 신이 모세에게 '샌들을 벗으라'고 명령한다. 그 이유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나르메르의 정벌전쟁이 세속적 행위가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거행한 거룩한 행위다.

화장판의 맨 아래 칸에 살해당한 두 명이 있다. 이 두 명은 외국인이다. 왼쪽남자는 성기와 음낭이 잘려져 나가 없으며, 오른쪽 남자는 이집트 관습에 맞게 할례 시술을 받았다. 이들의 머리는 바로 위 칸에서 나르메르에게 살해당하는 포로처럼 반대쪽이 젖혀져 있다. 나르메르와 총리대신의 시선과는 정반대다. 나르메르의 정면 시선은 질서상징하고 후면 시선은 '혼돈'이다. 고대 이집트어로 '질서'를 '마아트(ma´at)'라고 부른다. 마아트와는 반대로 '혼돈'을 '이스페트(izfet)'라고 부른다. 이스페트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해 길을 잃은 상태로 '거짓,' '진부함,' '오류'라는 뜻도 있다. 나르메르의 등극은 인류에게 문명의 의미를 가르친다. 인간은 우주의 질서에 맞게 행동해야하며, 문자의 등장이 인간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다.

V. 왕권의 등장

나르메르 화장판 뒷면은 앞면과는 달리 네 칸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칸은 앞면 위 칸의 복사판이다. 앞면과 동일하게 두 황소 여신 바트 사이에 궁궐을 상징하는 세렉,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이름 '나르메르'를 성각문자로 새겨놓았다. 뒷면도 역시 파라오의 등극과 마아트가 하-이집트를 정복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문명사회가 되었는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3. 나르메르 화장판 뒷면(이집트 카이로박물관 소장)

두 번째 칸은 다양한 상징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나르메르의 왕관이 앞면 왕관과는 다르다. 나르메르 왕관은 원래 왕관에 파피루스처럼 보이는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나르메르는 파피루스로 상징하는 하-이집트를 정복한 통일이집트의 왕이란 점을 이런 도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이제 명실 공히 통일 이집트의 왕으로 뒤쪽에 위치한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신전으로부터 나와 행진한다. 이 행진은 최고의 국가의례다. 파라오는 구슬이 달린 직사각형 주머니와 그물망처럼 보이는 주머니를 허리춤에 달았다. 그 그물망엔 부적이 매달려있다.[17] 나르메르는 오른손에 '네카카'(nekhakha)라고 불리는 도리깨를 들고 있다. 도리깨는 목동이 양떼를 몰 때 사용하거나, 타작마당에서 곡식의 알갱이를 추수할 때 사용한다. 이집트 예술에서 파라오가 든 도리깨는 지배와 풍요의 상징이다.[18] 파라오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리더다. 그는 오른손에 도끼를 들고 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상징이다. 파리오의 벨트에 힘의 상징인 황소의 꼬리가 매달려있다. 이중왕관을 쓴 나르메르의 이름이 세렉 없이 성각문자로 새겨져있다.

나르메르 왼쪽엔 사제가 서있다. 그는 파라오의 샌들과 정화수를 들고 있다. 그의 행진이 종교적 의례이기 때문이다. 나르메르 앞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총리대신인 것 같다. 파라오 뒤쪽에는 로제트 문양이 새겨져있다. 로제트 문양은 메소포타미아 우룩Uruk에서 고대 이집트로 수입된 문화상징으로, 권력을 의미한다.[19] 나르메르 오른쪽에 황소꼬리 장식이 달린 그물망 옷을 입은 고관이

---

17) Diana Patch, "A "Lower Egyptian" Costume: Its Origin, Development, and Meaning,"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32 (1995), 93-116.

18) Percy E. Newberry, "The Shepherd's Crook and the so-called "Flail" or "Scourage" of Osiri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5 (1929), 84-94.

19) H. Smith, "The Making of Egypt: a Review of the Influence of Susa and Sumer on Upper Egypt and Lower Nubia in the 4th Millenium BC," in Friedman and Adams eds., *The Followers of Horus, Studies Dedicated to Michael Allen Hoffmann, 1944-1990* (Michigan: Oxbow Books, 1992), 214-44. 로제트 문양은 기원전 4000년대 메소포타미아 우룩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룩은 인류 최초의 문명발상지로 동쪽으로는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로, 서쪽으로는 시리아, 이스라엘을 거쳐 이집트로 정교한 무역망을 구축하였다. 우룩에 거주하단 수메르인들은 잎이 8개 달린 로제트 문양을 다양한 유물에 새겨놓았다. 특히 우룩의 여신인 인안나Inanna는 권력의 상징으로 로제트를 사용하였다. 인안나는 또한 샛별신

걸어가고 있다. 그의 몸에서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파피루스가 부착되어있다. 학자들 간에 나르메르 앞에 서있는 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의 머리 쪽에 새겨져 있는 성각문자를 읽으면 '체트'(tt)다.[20]

체트 앞에는 네 명의 기수가 깃발을 들고 있다. 깃발 위에는 자신 속한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 모양의 토템이 새겨져 있다. 나르메르는 이 깃발들이 상징하는 지역을 정복하였다. 이 깃발 앞에는 나르메르의 정복을 반대한 혼돈의 세력들이 전시되어있다. 그들은 목이 잘려 다리 사이에 끼워져 있고 팔꿈치가 뒤로 묶인 채 두 줄로 진열되어 있다. 이들의 성기도 모두 잘려있다. 이 시체들 위로 거룩한 배가 유영한다. 이 배는 '호루스 성문'(hrw-´3)을 행하고 있다. 배의 이름은 성각문자로 배위에 새겨져있다. 배의 이름은 '유일한 배'(hrw-w´)'다. 이 배는 태양신 라의 아침 범선이기도 하다. 이 범선 앞에 앉아있는 새는 일출을 상징한다. 호루스는 태양이 암흑을 지나 광명으로 나오는 범선을 저 높은 곳에서 보호하고 있다. 태양을 실은 범선은 성문을 열어 새날을 시작한다.[21] 나르메르가 쓴 이중왕관 중 파피루스가 장착된 왕관을 '붉은 왕관'이라고 부른다. 붉은 왕관은 피의 상징한다. 적으로 상징되는 혼돈을 물리친 군사적인 행위다. 이집트인들은 새벽녘 하늘이 붉은 이유를 태양신 라가 밤에 적을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칸은 커다란 용과 같은 우주적인 괴물 두 마리가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 목이 교차하여 동그란 공간을 만들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원은 눈 화장을 위해 회안석이나 공작석을 분말로 가는 장소다. 화장을 위해 분말을 만드는 장소다. 그러므로 화장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왕권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례행위다. 괴물들이 목을 감싸며 싸우고 있는 전투를 벌이는 한 복판에서 축출한 분말로 파라오는 자신의 얼굴을 화장할 것이다.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행위는 우주의 질서인 '마아트'를 회복하기 위한 우주전쟁이다. 마지

이다. 메소포타미아 예술작품에서 인안나는 샛별을 표시하는 로제트로 등장한다.

20) 체트는 '총리'라는 의미를 지닌 '차티'(t(´)t(i))의 초기철자다. 혹은 '체트'를 '자손'이란 의미를 지닌 (w)tt(w)의 축약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1) David O'Connor, *The Narmer Palette: A New Interpretation in Before the Pyramids: The Origins of Egyptian Civilization* ed. Emily Teeter, *Oriental Institute Museum Publications* 3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1), 145-152.

막 칸엔 나르메르가 강력한 황소가 요새의 문을 뿔로 부순다. 고대 이집트어로 '강력한 황소'란 의미의 '카 네하트'(k3 nht)는 파라오의 별칭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선봉장이다.

VI. 나가는 글

나르메르 화장판 그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는지, 왕권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은유인지, 혹은 호루스 신전의 성물이었는지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부조들은 리더라는 개념의 등장과 그 정의를 시도한 첫 예술품이다. 나르메르는 자신의 왕관과 왕복을 통해 자신이 태양신 라의 '마아트'를 지키는 자일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라'로 여겼다. 마이트는 우주의 원칙이자 질서일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취해야한 최선이다. 5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나르메르를 기억하는 까닭은 그가 남긴 화장판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우주의 질서인 마아트라는 원칙에 맞추어 행동으로 옮겼다. 나르메르가 위대한 리더인 이유는 자신의 마아트를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 이야기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나르메르, 메네스, 나르메르 화장판, 마아트, 성각문자, 문명

투고일: 2017.10.18. 심사종료일: 2017.11.02. 게재확정일: 2017.11.18.

참고문헌

Allen, James P. *Middle Egyptian Grammar: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Assmann, Jan. *Moses the Egyptian: The Memory of Egypt in Western Monothe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Bains, J. "Origins of Egyptian Kingship." in O'Connor and Silverman eds., *Ancient Egyptian Kingship: Probleme der Ägyptologie 9*. Leiden: Brill, 1995.

Erman, A. and H. Grawpow, eds. *Wörterbuch der ägyptischen Sprache*. vol. I. Leipzig: Akad. Verlag, 1926.

Faulkner, Raymond O. and Ogden Goelet Jr. *The Egyptian Book of the Dead: The Book of Going Forth by Day: The Complete Papyrus of Ani Featuring Integrated Text and Full-Color Images*, 20th rev. ed. Eva von Dassow. London: Chronicle Book, 2015.

Kischkewitz, H. *Egyptian Art: Drawings & Paintings*. London: Hamlyn, 1989.

Martin, Denise. "Maat and order in African Cosmology: A Conceptual Tool for Understanding Indigenous Knowledge." *Journal of Black Studies* 38. 2008.

Newberry, Percy E. "The Shepherd's Crook and the so-called "Flail" or "Scourage" of Osiri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5. 1929.

O'Connor, David. *The Narmer Palette: A New Interpretation in Before the Pyramids: The Origins of Egyptian Civilization* ed. Emily Teeter, *Oriental Institute Museum Publications* 3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1.

Patch, Diana. "A "Lower Egyptian" Costume: Its Origin, Development, and

Meaning."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32. 1995.

Quibell, James E. *Hierakonpolis 1. Egypt Research Account 4*. London: Bernard Quaritch, 1900.

Quibell, James E. and Frederick W. Green. *Hierakonpolis 5. Egypt Research Account 4*. London: Bernard Quaritch, 1902.

Smith, H. "The Making of Egypt: a Review of the Influence of Susa and Sumer on Upper Egypt and Lower Nubia in the 4th Millenium BC." in Friedman and Adams eds., *The Followers of Horus, Studies Dedicated to Michael Allen Hoffmann, 1944-1990*. Michigan: Oxbow Books, 1992.

Wilkinson, Toby A. H. *State Formation in Egypt: Chronology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1996.

_____. *Early Dynastic Egypt*. London: Routledge, 1999.

_____. "What a King is This: Narmer and the Concept of Ruler." *Journal of Egyptian Archeology* 86. 2000.

<Abstract>

Narmer Palette, Representation of ‘Maat’

Bae, Chulhyun(Seoul National Univ.)

The ‘Narmer Palette’ was discovered by Quibell in 1894 in Kom el-Ahmar (Hierakonpolis). The decoration commemorates the victories of Narmer. It celebrates the birth of Egyptian civilization. It is of such vital importanc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first human culture that is truly unique and utterly irreplaceable. The Narmer Palette is so valuable that it has never been permitted to leave the country. The beautifully carved palette, 63.5cm in height and made of smooth siltstone, is decorated on both faces with detailed low relief. These scenes show a king, identified by name as Narmer. Maat, the principle on which Egyptian culture and civilization was formulated is beautifully expressed in the Narmer Palette.

Keywords: Narmer, Menes, Narmer Palette, Maat, hieroglyph, civilization